



## 증가하고 있는 글래서병

- 홍보부 -

### ○격리에 의한 면역성의 저하

유럽에서 양돈을 하고 있는 대개 나라의 수의사 보고에서는, 과거에는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세균의 감염증이 현재는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Haemophilus parasuis*의 감염에 의해 일어나는 글래서병도 그 하나이다.

글래서병의 발생증가의 원인은 유럽의 양돈양식의 변화

에 의한 것 같다. 최근에는 돈사를 격리하고, 갱신돈의 도입이 필요할 때, 건강상태가 좋은 농장으로부터 행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많은 양돈가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이와같은 상황에서는 면역성을 관리조절하는 일이 곤란하다. 격리된 돈군에서는 *H. parasuis*와 같은 세균과 접촉될 기회가 줄고, 이들에 대한 면역성도 서서히 저하한다. 그 때문에 감염돈을 도입하든가 해서 세균이 침입하게

되면 급성감염의 발생을 초래하게 된다.

글래서병에 감염되면 장막(漿膜)에 섬유소성(纖維素性)의 염증을 일으킨다. 복막, 심막, 늑막, 관절의 활막(滑膜), 뇌척수막에도 위험을 미친다. 증상은 감염후 수일(2~12일)에 나타난다. 급성감염에서는 이렇다 할 증상이 없이 급사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보통은 식욕감퇴, 발열(체온 40~41℃), 빈번한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때로는 감염돈의 다리에 염증을 일으켜 관절이 붓고 기립이 곤란하게 된다. 뇌척수막염이 진행되면 기립불능이나 신경증상을 나타낸다.

### ○진단방법

중요한 것은 모든 월령의 돼지가 대상으로 된다는 사실이다. 글래서병은 다른 병과 혼동하기 쉽다. 가령 PSS증후군이 나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스트렙토코카스에 의한 뇌척수염으로 오진되어 진다.

SPF농장에서는 급성폐염과 혼동하기 쉽다. 또 관절에 이상은 마이코플라스마의 원인인 것으로 오진된다. 진단은 임상증상과 병행하여 부검에 의한 증상을 합하여 행한다(섬유소장막에의 석출(析出)이 특징).

그러나 확실한 진단은 세균의 검사에 의한다. 전형적인 예로, 가령 뇌막의 경우에는 세균을 배양한다. 그러나 세균은 도체로부터는 급속히 소멸하기 때문에, 세균배양이 힘든 경우가 많다.

다른 진단방법으로는 혈액에 의한 항체검사가 있다. 그러나 많은 농장의 돼지는 이미 H. parasuis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고, 급성병 발생증과 2~3주후에 3회 채혈할 필요가 때때로 생긴다. 만약 항체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돼지가 감염으로 부터 회복되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 ○ 예방과 치료법

글래서병의 예방을 위해 덴마크 등 몇개의 나라에서는 백신을 이용하고 있다. 백신은 2~3주 간격으로 2회 행하고, 급성병에 대하여는 효과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덴마크에서는 종돈의 판매전에 백신접종을 행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글래서병에 대한 염려가 없다. 그러함에도 백신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질병의 발생을 피하기는 힘들다.

글래서병이 없는 농장에서는 갱신종돈에 대하여 도입전 3~4일에 항생물질을 투여한

다. 이와같은 도입돈은 도착후에도 검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도입후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돈군 전체에 피해가 미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

급성의 글래서병 발생후에 치료는 항생물질이 효과적이다. 페니실린 또는 테트라사이클린을 1~2회 투여한다. 증상이 진행되기 전에 치료하지 않으면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 구입돈은 수시로 체크하고 일찍 증상을 발견토록 한다. 만약 감수성이 높은 농장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두수에 백신을 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 ○ 스트레스와 면역성의 저하

글래서병이 발생하였을 때의 징후에 대하여 수의사나 농장경영자의 경험으로부터 몇가지 예를 들어본다. 덴마크의 SPF농장에서는 여러 마리의 모돈이 규사하는 것으로 부터 이 질병이 발생하였다. 검사결과에서 명백한 변화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후에 사망한 모돈의 부검결과 글래서병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225두의 모돈중 12두가 사망하고 많은 돼지에 치료를 행하였다. 검사결과 세균은 급성병이 발생하고 있는 농장에 들렸던 사람

**구입돈은 수시로 체크하고 일찍 증상을 발견하도록 한다. 만약 감수성이 높은 농장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두수에 백신을 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위험한 것은 받아들이는 농장만이 아니다. 가령 글래서병의 항체가 없는 농장에 감수성이 높은 돼지를 이미 감염된 농장에 옮겼을 때도 질병이 발생한 예도 있다.

농장의 면역수준에 더하여 돼지가 처해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도 글래서병의 문제에는 중요한 요소로 된다. 항체가 적은 돼지를 감염돈군내에 넣었을 경우에는 강한 스트레스의 압력이 면역성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생을 가져온다

어떤 비육경영에서는 새로운 자돈을 비육돈사에 도입할 때마다 글래서병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돈사 도입직후에는 사료를 바꾸지 않도록 한 결과 급성병의 문제는 해결하였다고 한다.

이와같은 일로써 글래서병의 발생에 있어 면역성은 중요한 요소이나 다른 요소도 감염능력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